

經濟週評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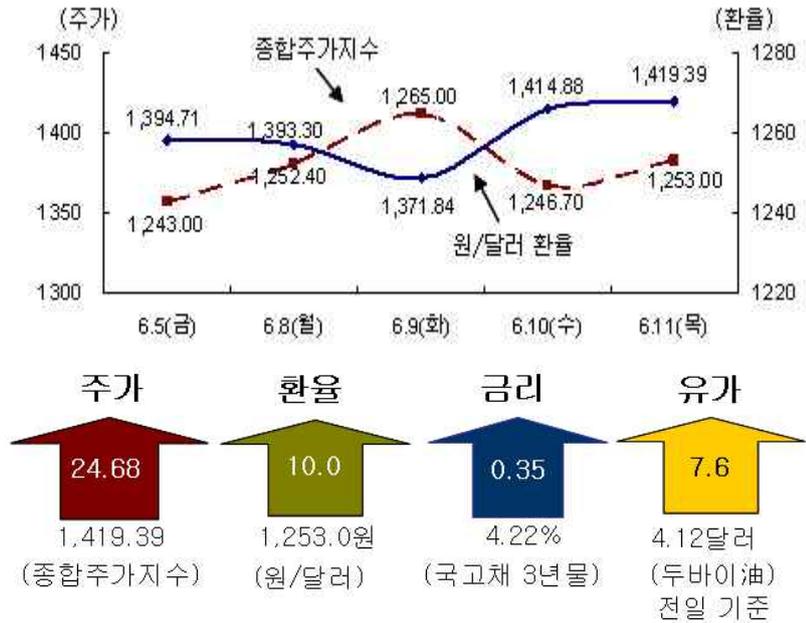


■ 한미 정상 회담의 성과 제고 방안

- 한미 통상 관계 침체와 활성화 과제

週間 主要 經濟 指標 (6.5~6.11)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한미 정상 회담의 성과 제고 방안	
- 한미 통상 관계 침체와 활성화 과제	1
주간 경제 동향	1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실 물 경 제 실 : 김 민 정 연구 위 원 (3669-4457, kimmj@hri.co.kr)
 : 임 희 정 연구 위 원 (3669-4031, limhj9@hri.co.kr)

Executive Summary

□ 한미 정상 회담의 성과 제고 방안

- 한미 통상 관계 침체와 활성화 과제

(한미 정상 회담 일정 및 주요 의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부터 미국 워싱턴을 공식 방문하여 16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안보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미간 통상관계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통상 관계 위축 추세) 한미 통상 관계는 1980년대 이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우선, 한국의 대미 무역 비중 추이를 보면 1986년 31%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현재 한국 총 무역 규모의 10%에 그친다. 이로 인해 1980년 2007년 기간 중 1순위를 차지했던 대미국 무역 비중은 2008년에는 중국, 유럽, 일본에 이어 4위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한편 미국의 대한국 무역 비중 추이를 보면 1988년 4.1%에 달했던 미국의 대한국 비중이 2.4%로 1.7%p나 하락하였다. 또한, 투자 추이를 보면 한국의 총 해외 투자 중 대미 투자 비중이 2000년대에 들어 하락하고 있어 투자 대상으로서 미국의 중요성도 하락하였다. 비중 추이는 1999년 41.4%에서 2007년에 15.8%까지 떨어졌다. 미국의 대한국 투자 비중은 2008년까지 2%대에 머물러 있어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에 비해 낮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국 투자 비중은 2008년 현재 2.5%로 일본 9.4%, 멕시코 8.4%, 브라질 3.8%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한미 통상 관계 축소 배경) 첫째, 일본은 물론 중국과의 대미국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쟁도는 2000년 0.517에서 2005년 0.647로, 일본과는 2000년 0.729에서 2005년 0.744로 상승했다. 둘째, 대미 수출 주력 상품의 경쟁력 약화다. 자동차, 철강, 통신장비, 전기전자 의류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미국 시장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2004년 5.83%에서 2008년 5.07%로, 철강은 1999년 6.49%에서 2008년 5.43%로, 통신장비는 2004년 12.47%에서 2008년 8.08%로 급락하였다. 셋째 미국의 수입 수요가 최근에 들어 크게 위축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의 수입 시장 증가율은 세계 수입시장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다. 넷째, 한미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는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많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의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의 지연이다. 한미 FTA가 양국의 비준 지연으로 최종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통상 관계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미 통상 관계 증진 과제) 한국의 대미국 무역과 투자 비중 축소는 세계 최대 시장에서의 기회가 점차 소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에 대한 추진 일정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합의 도출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양국 간 통상 마찰 해소를 위한 실무적 논의를 이룰 수 있는 한미 통상 마찰 해소 위원회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녹색기술산업 교류촉진협의회'의 구성을 통해 녹색 기술 및 관련 산업 간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신성장동력 부문에서 양국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넷째, 통신장비, 전기전자 등 대미 주요 수출 품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 차별화 및 부가가치를 제고시켜야 한다.

< 한미 정상 회담의 성과 제고 방안 >

한미 정상 회담 일정 및 의제	
한미 정상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은 15일부터 3박 4일간 미국 워싱턴 공식 방문 - 외교·안보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미간 통상 관계 활성화 방안의 구체화 필요

한미 통상 관계 위축 추세	
한미간 양국 무역 비중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까지 한국 무역 비중 1위를 차지한 미국은 2008년 현재 4위 - 미국 무역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8년 4.1%에서 2008년 2.4%로 낮아짐
한미 양국간 투자 비중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대미 투자 비중은 1999년 41.4%에서 2007년 15.8%까지 하락 - 미국의 대한국 투자 비중은 2008년까지 2%대에 머물고 있음 · 미국의 대한국 투자 비중은 2008년 2.5%로 일본 9.4%, 멕시코 8.4%, 브라질 3.8%에 비해 낮음

한미 통상 관계 축소의 배경	
대미국 수출 경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물론 중국과의 대미국 수출 경쟁 심화 ·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쟁도는 2000년 0.517에서 2005년 0.647로 일본과는 2000년 0.729에서 2005년 0.744로 상승
대미 수출 주력 상품 경쟁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의 경우, 2004년 5.83%에서 2008년 5.07% 하락 - 통신장비는 2004년 12.47%에서 2008년 8.08%로 급락
미국 수입 수요 크게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의 수입 시장 증가율은 세계 수입시장 증가율을 하회
한미 통상마찰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의 주요 수출품 규제 심화
한미 FTA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가 양국의 비준 지연

한미 통상 관계 증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기회가 점차 소멸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에 대한 추진 일정 등에 관한 합의 도출 유도 · 둘째, 양국 간 통상 마찰 해소를 위한 ‘한미 통상 마찰 해소 위원회’ 가동 · 셋째,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녹색 성장 분야에서 산업, 기술, 인재 부문에서 민간 교류 강화 · 넷째, 품목 차별화 및 부가가치 제고로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 강화 	

I. 한미 정상 회담 일정 및 주요 의제

- (한미정상회담 일정) 이명박 대통령은 15일부터(3박4일간) 미국 워싱턴을 공식 방문하여 16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 세부일정 :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5일부터 3박 4일간 미국 워싱턴을 공식방문하여 16일에는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및 오찬 후에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며 한미 최고경영자 초청 만찬회에도 참석
 - 15일에는 미 행정부 주요 인사를 접견하고, 17일에는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18일 귀국할 예정임

- (주요 의제)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서는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가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
 -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 : 안보를 넘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임
 -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지력'을 명문화하여 핵우산(Nuclear Umbrella) 관련 철저한 안전 보장이 이루어질 전망임
 - 주요 경제 현안 : 한미 FTA의 구체적 진전, 저탄소 녹색성장 등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공조 방안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등 양국간 경제적,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전망
 -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 새 정부 출범 후 양국간 첫 정상회담을 통한 공식 만남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과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안보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미간 통상관계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임

II. 한미 통상 관계 위축 추세

○ 한미 통상 관계는 1980년대 이후 갈수록 위축되는 양상을 나타냄

- 한국과 미국의 무역과 투자 관계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한국의 대미 무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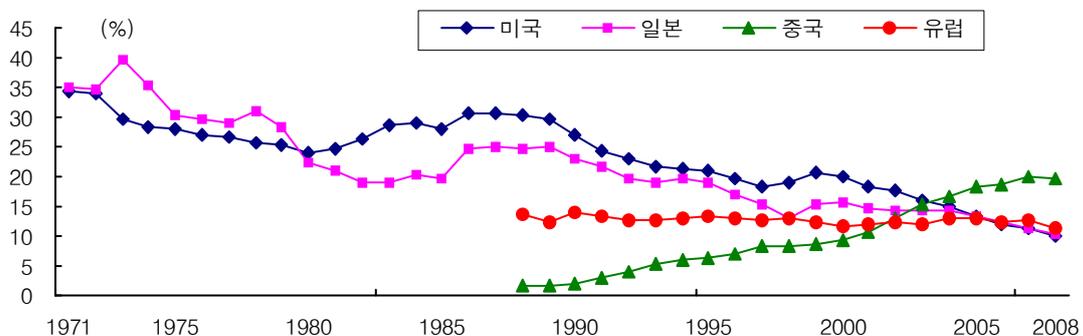
- (한국의 대미 무역 규모) 한국의 대미 무역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중요성이 크게 축소되고 있음

- 한국의 대미 무역 비중 추이를 보면 1986년 31%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현재 한국 총 무역 규모의 10%를 차지
- 이에 반해 중국의 비중은 1988년에 2%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에 한국 총 무역 규모의 20%를 차지
- 그 결과 미국의 한국 무역 중 차지하는 비중의 순위가 추락
- 미국은 1980년~2003년 기간 중 비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 이후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었고 2008년에 847억 달러로 전체 비중이 중국, 유럽, 일본에 이어 4위로 추락

- (한국의 대미 수출 추이) 수출 비중 역시 지속 하락

- 한국의 대미 수출은 1980년부터 2002년까지 수출 비중에서 1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중국에 이어 2위, 2005년부터는 중국, 유럽에 이어 3위로 비중이 낮아졌음
- 2008년 현재 대미 수출액은 464억 달러(11%), 대중국은 914억 달러(22%), 대유럽은 584억 달러(14%), 대일본은 283억 달러(7%) 임

< 한국 무역 중 주요국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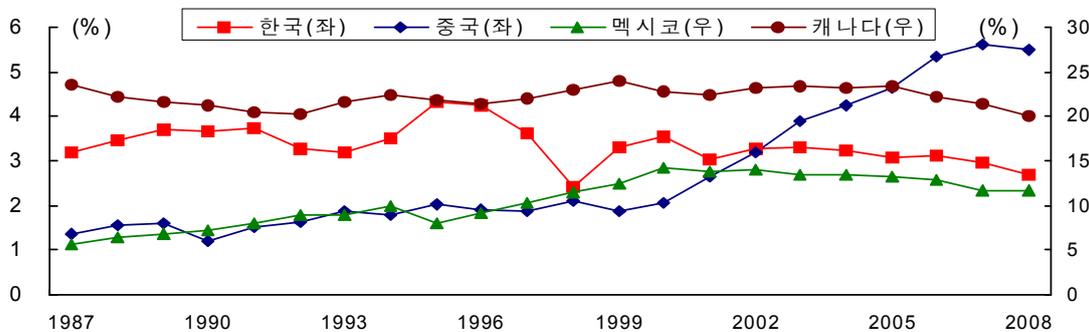
자료 : Reuters.

- (한국의 대미 수입 추이) 수입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
 - 한국의 대미 수입은 1980년부터 2004년까지는 일본에 이어 2위 수준을 유지 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중국에 이어 3위, 2008년에는 4위로 낮아졌음
 - 2008년 현재 대미 수입액은 384억 달러(9%), 대중국은 769억 달러(18%), 대 유럽은 400억 달러(9%), 대일본은 610억 달러(14%) 임

○ 미국의 대한 무역 추이

- (미국의 대한 무역 규모) 수출과 수입의 절대 규모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가 하고 있으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미국의 무역 파트너로 볼 때 한 국의 중요성은 점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현재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 규모는 3,675억 달러(10.8%), 대캐나다는 5,969억 달러(17.6%), 대중국은 4,092억 달러(12.0%), 한국은 829억 달러 (2.4%)임
- (미국의 대한 수출 추이) 수출 비중 지속적으로 하락
 - 미국의 대한 수출은 1996년에 비중이 4.3%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 2.7%로 낮아짐
 - 2008년 현재 미국의 대캐나다 수출액은 2,614억 달러(20.1%), 대멕시코는 1,515억 달러(11.7%), 대중국은 715억 달러(5.5%)임
- (미국의 대한 수입 추이)
 - 미국의 대한 수입은 1988년에 비중이 4.6%에 달하였으나 2008년에는 2.3%로 낮아짐
 - 2008년 현재 미국의 대중국은 수입액은 3,378억 달러(16.1%), 대캐나다는 3,356억 달러(16.0%), 대멕시코는 2,159억 달러(10.3%)임

< 미국 무역 중 주요국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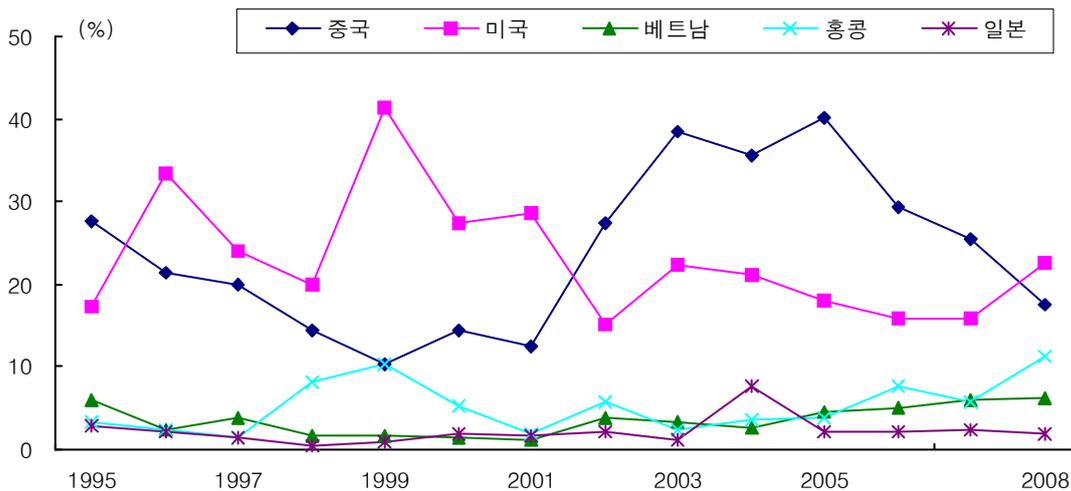
자료 : Reuters.

○ 한미간 투자 추이

-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한국의 총 해외 투자 중 대미 투자 비중은 2000년대에 들어 하락하고 있어 투자 대상으로서의 미국의 중요성도 하락
 - 한국의 대미국 투자액은 1999년에 41.4%까지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 15.9%까지 하락하였고 순위도 2위로 하락함
 - 단, 2008년 현재 한국의 대미국 투자액은 49.4억 달러(22.6%), 대중국 38.3억 달러(17.5%), 대홍콩은 24.9억 달러(11.4%), 대베트남은 13.5억 달러(6.2%), 대일본은 4.3억 달러(1.9%) 임
 - 미국은 2008년에 중국을 제치고 투자 비중이 1순위로 상승하였으나 이는 한미 FTA 추진과정의 기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 미국의 총 해외 투자 중 대한 투자 비중은 2008년까지 2%대에 머물러 있어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에 비해 낮은 비중을 유지¹⁾
 - 2008년 현재 미국의 대한국 투자 비중은 2.5%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에 비해 미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이 아님
 - 2008년 현재 미국의 대영국 투자 비중은 36.8%, 대캐나다 23.7%, 대독일 9.9%, 대일본 9.4%, 대멕시코 8.4%, 대브라질 3.8%임

< 한국 대 주요국 투자 비중 추이 >



자료 : 수출입은행.

1) 미국의 대 주요국 직접 투자는 U.S. Direct Investment Position Abroad on a Historical-Cost Basis(US BEA). 미국의 해외투자 주요국 10개 국가를 샘플로 선정하여 미국이 각 10개의 국가에 투자하는 비중을 계산함.

III. 한미 통상 관계 축소의 배경

○ 대미국 수출 경쟁 격화

- 미국 시장에서 한·중 그리고 한·일 간의 수출 경합도 지수(ESI)²⁾가 갈수록 상승
 - 한·중 수출경합도 : 중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짐.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는 2000년 0.596에서 2005년 0.637로 상승
 - 한·일 수출경합도 :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쟁은 중국보다 더 치열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합도는 2000년 0.729에서 2005년 0.744로 상승

< 미국 시장에서의 한·중·일 수출 경합도 추이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한·중	0.596	0.623	0.639	0.635	0.643	0.637
한·일	0.729	0.713	0.724	0.737	0.741	0.744
중·일	0.517	0.545	0.572	0.603	0.641	0.647

자료 : Yoon and Yeo (2007년), *Trade Structures and Relations among China, Japan, and Korea*.

- 2) 수출 경합도 지수(Export Similarity Index)란 특정 시장에서 양국 간의 경쟁 정도를 판별하기 위한 지표. 한·중 수출 경합도는 한국과 중국의 수출품목 i 의 대미 수출 비중 중 작은 수치를 각각 모든 수출품목별로 선정해 그 값들을 합산하여 구한 값으로 ESI 값은 0 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ESI 값이 1에 가까워 질수록 수출상품구조가 비슷하며 ESI 값이 0에 가까워 질수록 수출상품구조가 다름

한국과 중국의 미국시장내에서의 수출경합도 산출 방식:

$$ESI_{\text{한국, 중국}} = \sum_i \min(X_{i\text{한국}}, X_{i\text{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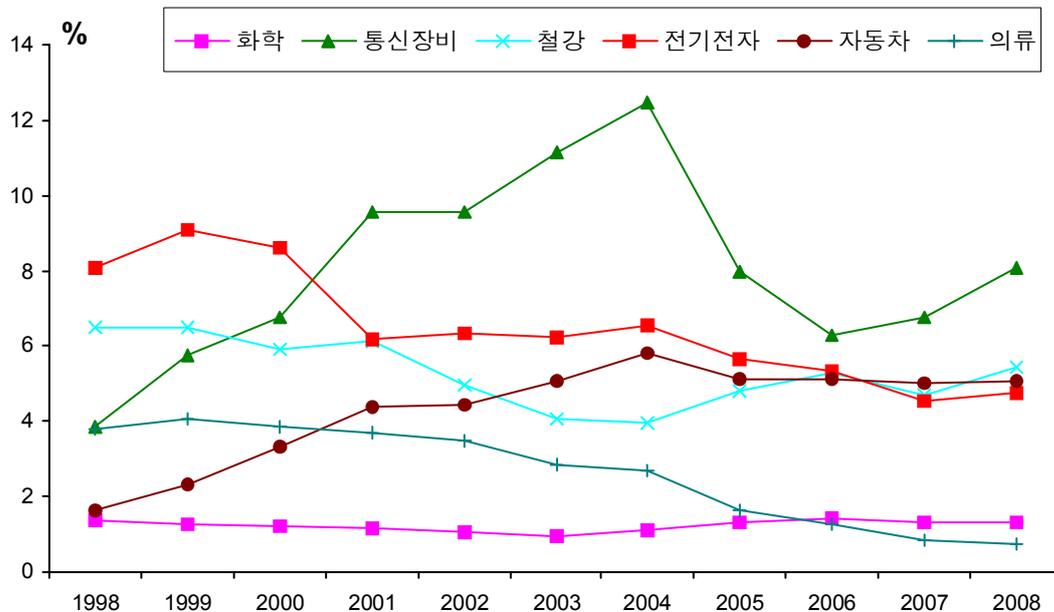
$X_{i\text{한국}}$: 한국의 수출품목 i 의 대미 수출비중 (수출품목 i 의 대미수출규모/총대미수출규모)

$X_{i\text{중국}}$: 중국의 수출품목 i 의 대미 수출비중 (수출품목 i 의 대미수출규모/총대미수출규모)

○ 대미 수출 주력 상품의 경쟁력 약화

- (대미 주요 수출 상품 점유율 감소) 자동차, 철강, 통신장비, 전기전자, 의류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상품의 미국 시장 내 경쟁이 약화되고 점유율이 축소됨
- 자동차 : 2008년에 5.0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2004년의 5.83%에 비해서는 0.77%p 하락함
- 철강 : 미국 시장 점유율이 1999년에 6.49%에서 2008년에는 5.43%로 낮아짐
- 통신장비 :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04년 12.47%에서 2008년 8.08%로 급락
- 전기전자 :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1999년 9.10%에서 2008년에는 4.76%로 5.34%p나 하락
- 의류 : 점유율이 2008년에 0.72%로 가장 높았던 1999년 4.05%에 비해 3.33%p나 하락

< 미국 시장 수출 상품 비중 변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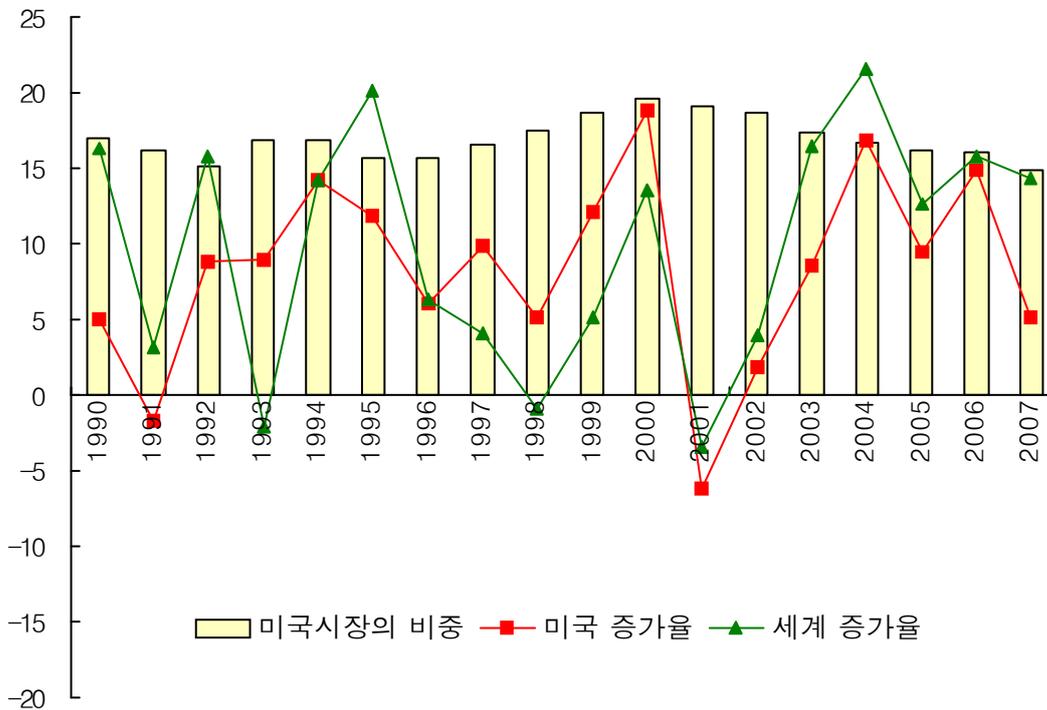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SITC revision 3).

○ 미국 수입 수요 위축

- 미국의 전체 수입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 수요 위축으로 이어짐
- **수입 증가율** : 미국의 수입 증가율은 2004년에 16.9%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에는 5.1%까지 떨어졌다가 2008년에 7.3%로 다소 반등
-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 수입 시장 증가율은 세계 수입 시장 증가율을 하회하고 미국의 세계 시장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미국 수입 수요 축소로 이어짐

< 미국 및 세계 수입 시장 증가율 추이 >



자료 : UN Comtrade.

○ 한미 통상마찰 심화

-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는 건수에서는 인도와 중국이 부과한 것에 비해 적지만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의 제품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임
- 미국의 대한국 규제 : 2008년 현재 철강 10건(전체 건수 대비 72%), 화학 2건(14%), 섬유 1건(7%), 기타 1건(7%)으로 총 14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규제 형태 :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형태는 2008년 기준으로 반덤핑 10건, 반덤핑과 상계관세가 동시에 적용된 4건을 기록
- 대한국 규제는 선진국 중 1위 : 한국은 2008년 현재 인도 24 건, 중국 21 건, 미국 14건 등 19개국으로부터 총 11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전체 규제 수에서는 3위이나 선진국만 비교한다면 대한국 규제가 1위임³⁾
-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부문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 대상이 되어왔음

< 미국의 대한국 품목별 수입 규제 >

품목	세부 항목 및 규제 내용
반도체	- DRAMS(Dynamic random access memory chips) (반덤핑 판정, 1997) - DRAMS (상계관세, '03.8.11) - DRAMS (상계관세, '08.3.17)
철강	- 철강후판(반덤핑/상계관세, '00.2.10, '05.12.6) - 유정용 강관(반덤핑, '96.6.20, '06.10.6) - 스테인리스강관 이음쇠(반덤핑, '92.2.23, '05.10.20) - 스테인리스 용접 강관(반덤핑, '92.12.30, '06.9.11) - 스탠다드 강관(반덤핑, '92.11.2, '05.10.20) - PC 강선(반덤핑, '04.1.28) 등
석유화학	- PET필름 (반덤핑, '91.4.15) - 폴리염화비닐(PVA) (반덤핑, '02.9.26) - Polyvinyl Alcohol(반덤핑, '03.10.1)

자료 : KOTRA.

3) 각국의 대한국 수입 규제는 인도 24건, 중국, 21건, 미국 14건, 터키 6건, 유럽 5건, 남아공 5건, 파키스탄 4건, 인도네시아 4건, 캐나다 3건 등임.

○ 한미 FTA 지연

- **(비준 지연)** 한미 FTA가 양국의 비준으로 최종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포괄적인 경제·통상협력을 위해 2006 한미 양국은 FTA 협상 출범을 공식발표하였고 2007 FTA 협상을 타결
 - 하지만 최근 미국의 금융 불안 및 경기침체 대응 과정에서 신보호주의 정책 수단들이 등장하기 시작.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공공사업에 철강 등 자국산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Buy American)을 포함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 한미 양국 간 자동차교역의 불공평성에 대해 언급을 하였고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이에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GM) 역시 파산보호신청
 - 이러한 미국 자동차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자동차 분야의 재협상이 미국 의회 비준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될 가능성 높아 비준 성사가 불투명

- **(한미 FTA의 무역 증대)** 한국 무역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
 - 국회 한미 FTA 특위 보고자료(2007년 4월 30일)에 따르면 한미 FTA는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및 자원 배분 효율화를 통해 국내 GDP를 0.32%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
 - 연평균 대미 수출은 13.3억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8.6억 달러 증가하여 양국 간 교역량 증대
 - 장기(10년)적으로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해 GDP를 6% 상승(연평균 0.6%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

IV. 한미 통상 관계 증진 과제

- **(최대 수출 시장 상실 우려)** 한국의 대미국 무역과 투자 비중 축소는 세계 최대 시장에서의 기회가 점차 소멸됨을 의미
 - 미국의 수입 수요 비중이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 역할을 함
 - 특히 주요 산업의 대미 수출 시장 점유율 축소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
 -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서 한미 통상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
-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한미 FTA는 양국 간 통상 협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양국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및 이를 통한 양국 간 경제 전반의 교류 활성화를 꾀해야 함
 -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에 대한 추진 일정 등에 관한 합의 도출 유도
- **(한미 통상 마찰 위원회 가동)**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이룰 수 있는 '한미 통상마찰 해소 위원회(안)'를 가동
 - 가칭 '한미 통상마찰 해소 위원회'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중장기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통상 문제 및 현안에 대한 양국 공동 대처 방안 모색

- **(한미 양국 간 민간 교류 강화)** 한미간 산업, 기술, 인재 부문에서 민간 교류 강화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의 통상 협력 증진
 - 특히 가칭 **‘녹색기술산업 교류촉진협의회’**의 구성을 통해 녹색 기술 및 관련 산업 간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신성장동력 부문에서 양국간 시너지 효과 창출
 - 본 협의회를 기술, 인재, 산업, 투자 등 세부 부문으로 나누어 양국 간 실질적인 새로운 협력 모델 모색
 - 녹색산업의 경우, 아직 어떤 국가도 절대 우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시장도 도입기에 있어 만약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역량들을 교류 심화를 통해 육성해 나갈 경우 양국 모두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수출 상품 경쟁력 강화)** 통신장비, 전기전자 등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의 시장 점유율 하락 등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어 품목 다변화, 차별화,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특히 한국은 지식집약, 기술 집약형 산업의 육성으로 국내경제의 경쟁력강화와 수출 품목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중국 수출품목과 질적 차별화를 추구

김민정 연구위원 (3669-4457, kimmj@hri.co.kr)
임희정 연구위원 (3669-4031, limhj9@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E)
				1/4	2/4	3/4	4/4	1/4	
미국	2.8	2.0	1.1	0.9	2.8	-0.5	-6.3	-5.7	-2.8
EU	2.9	2.7	0.8	0.6	-0.2	-0.2	-1.6	-2.5	-4.2
일본	2.0	2.3	-0.7	1.4	-3.5	-2.5	-14.4	-15.2	-6.2
중국	11.6	13.0	9.0	10.6	10.1	9.0	6.8	6.1	6.7
한국	5.2	5.1	2.2	5.5	4.3	3.1	-3.4	-4.2	-4.0

주 1) : 2008년, 2009년 1/4분기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4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7년 말	2008년		2009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3월말	6월 4일	6월 11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02	3.97	2.21	2.66	3.71	3.95	0.24%p
	엔/달러	112.58	106.27	90.22	97.34	96.66	98.19	1.525¥
	달러/유로	1.4722	1.5785	1.4125	1.3190	1.4174	1.3980	-0.0194\$
	다우존스지수	13,265	11,350	8,776	7,609	8,750	8,739	-11p
	닛케이지수	15,380	13,481	8,860	8,110	9,669	9,991	32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5.74	5.90	3.41	3.94	3.88	4.13	0.25%p
	원/달러	936.1	1,046.0	1,259.5	1,383.5	1,251.0	1,253.0	2.0원
	코스피지수	1,897.1	1,674.9	1,124.5	1,206.3	1,378.1	1,419.4	41.3p

주 : 6월 11일 해외 지표는 전일(6월 10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7년말	2008년		2009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3월말	6월 4일	6월 11일		
국제 유가	WTI	95.97	140.03	44.61	49.65	68.78	71.27	2.49\$
	Dubai	89.30	136.16	36.45	46.80	66.83	70.95	4.12\$
CRB선물지수	358.71	462.74	229.54	220.40	259.79	260.87	1.08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